

# 중동발 '포장재 쇼크'...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직격탄

## 플라스틱·비닐 주원료 나프타 수급 난항에 가격 상승 배달·포장 위주 음식점·식자재 유통업체 '진퇴양난'

장기화된 중동사태의 여파로 인한 '나프타 대란'이 중소기업을 넘어 소상공인들까지 덮치고 있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영업 현장이 포장재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 등 '포장재 쇼크'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제 데이터 플랫폼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프타 가격은 1당 853.31달러로 상승하며 전월인

30일 대비 0.01%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프타 가격은 34.70%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37.51% 폭등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동 사태 이전인 지난 2월 1당 633달러(약 84만 원)에서 지난달 24일 1089달러(약 144만 원)로 약 72% 급등하기도 했다.

나프타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초 원료로,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들 소재는 라면 봉지, 스낵 포장지, 음료 페트병 등 식품 포장재의 핵심 원료다. 특히 포장재는 통상 수급이 원활해 제고를 크게 쌓아두지 않는 품목으로, 공급 차질 시 타격이 빠르게 나타나는 구조다. 이 같은 나프타 가격 급등의 여파는 플라스틱·비닐 포장재로 번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달·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음식점과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기

가격은 불과 일주일 사이 박스당 3만6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약 33% 급등했다. 일부 품목은 이미 '품절' 상태이며 사재기를 막기 위해 업체별로 주문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등장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매뉴 가격 인상 대신 '포장비 별도 부과'를 내걸고 있기도 하다.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언제 포장재 주문이 막힐지 몰라 일단 배달 용기를 평소보다 두 배는 더 쌓아뒀다"며 "우리 매장은 홀보다 배달이 더 많은데, 용기가 없으면 장사 차질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수수료와 원재료비, 인건비까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문제는 포장재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배달 음식 가격 인상이나 포장비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외식 물가 전반에 부담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동사태 전 미터톤(MT) 당 약 640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이 최근 1220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나프타 가격의 상승이 포장재 가격의 40% 이상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소상공인

들이 '진퇴양난'의 경영 위기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합회는 나프타 가격과 연동되는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제안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4686억원을 편성하고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해 대체 나프타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며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한 공급 확대 지원책도 적극 추진해 생산과 공급 유지에 나선다. **윤용성 기자 yoi404@**



켄텍은 최근 광운대 화도관에서 광운대와 첨단산업 혁신 분야 연구협력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에너지·첨단산업 '대형 R&D' 손잡았다

### 켄텍·광운대, 핵융합·수소·전력반도체 공동 기획 착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광운대 학교가 손을 맞잡고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에 나섰다. 켄텍은 최근 광운대 화도관에서 광운대와 첨단산업 혁신 분야 연구협력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국가 전략기술 분야 대형 R&D 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대형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단일 연구과제 수행을 넘어 연구개발·인재양성·산학협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학이 보유한 기초 연구역량과 산업계 수요를 연결해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광운대가 축적해 온 공학 연구 역량을 미래 전력기술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핵융합과 수소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대형 R&D 과제를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에너지 대전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 청년 취업 넘어 조직문화까지...광주 일자리 모델 선도

### 광주경총 '청년미래플러스' 선정...675명 대상 전주기 지원 자동차·전자부품 중심 맞춤 교육·장기 고용 안정 구조 설계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이 '취업 준비-현장 적응-조직문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모델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 경제계가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기업 내부 환경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세우면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조직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제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고용노동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그동안 고용부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취업 및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최우수(S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취업 준비 단계부터

직무역량 강화, 조직 적응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전국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광주경총은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청년 225명, 재직청년 150명, 기업 관리자 300명 등 총 67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구직청년에게는 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업 연계가 제공된다. 재직청년에게는 경력설계 프로그램이 추가로 지원되며, 기업 CEO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청년 세대 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도 병행

된다. 광주경총은 지역 유관기관과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참여 청년과 기업 간 실질적 매칭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취업 연계를 지속 지원해 단기 취업 성과를 넘어 장기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광주경총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일자리사업본부(062-608-9963)를 통해 진행되며, 구직청년과 지역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 단계부터 직무 적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한전, 베트남 원전 공급망 구축 본격화

### PVN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 설계·건설·운영 전주기 구체화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원전 시장을 겨냥한 현지 공급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베트남 남부 봉따우에서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투어-2 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양측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 PTSC가 운영 중인 항만 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둘러보며 현지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 여건을 점검했다.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 연계가



한국전력은 최근 베트남 남부 봉따우에서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TSC, VSP, Petrocons, PV Power, VPI, PVU 등 주요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정책 발표 직후 PVN과 공급망 협력 논의에 착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DH AUTOLEAD

## 미래가 준비된 기업 매 오토리드

###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

**DH 오토리드 신기술 / 신공법 / 신소재 선행개발 계획**

신기술	2018	2019	2020~
·HOD(Hands off Defect) 시스템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 시스템 ·베젤부 히팅 시스템 ·텐스타어링 휠 Body Run 제어대화 ·화단단 컨트롤러 히팅 스티어링 휠			▶ 32건
·66인 허브 3인 결자구조 ·히브리스 아마주어 ·경제형 리얼카본 베젤 ·Wood 셀공법 / UV코팅 ·2톤 가속 + 히팅 스티어링 휠			▶ 17건
·연상 발열 Heated 시스템 ·Bio 원적외선 Heated 시스템 ·Metallic 베젤 ·열선 패드 (EPDM)			▶ 14건

### 매 오토리드 시장점유율

국내 시장점유율 (2023년 생산량 기준)

**62%**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 연간 생산량 대비 DH 오토리드 생산량

연도	2020	2021	2022	2023
점유율	46.0%	43.0%	42.0%	42.0%

자료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그룹, 기아자동차

### 주요제품 및 세부현황

Amature ASSY 스티어링 휠의 뼈대	LWD Cover 조립부 커버
천연가죽/인조가죽 고급성 향상	D/Damper 고유진동수 확보
Switch 운전자 편의사항	Haptic Motor ASSY ADAS 알림 기능
Bezel 리모컨 가이드	Heating PAD 열선 지형용 나타냄

### 생산기지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b>대한민국</b> 본사/관주	<b>슬로바키아</b> 슬로바키아 불류장고 구축 2020년 하반기(절리나)	<b>베트남</b>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2021년 상반기(원화성)	<b>대국</b> 대국 법인설립 2023년 상반기(리우)	<b>멕시코</b> 멕시코 생산공장 확장 설립 2023년 상반기(몬테레이)	<b>중국</b> 중국 생산공장 설립 2025년 상반기(백경, 염성)
----------------------	---	---	---------------------------------------	---	--